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4호 나전칠기장 칠장
보유자

배금 봉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물이나 용기에 옷칠을 하면 습기와 병충해의 피해를 막아 줄 뿐만 아니라 고온에도 잘 견디게 해 준다. 이런 까닭에 선사시대부터 철기가 널리 사용되었고, 역사시대로 들어오면서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한 철기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에는 값비싼 서역의 주옥(珠玉)이나 거북등껍데기 등으로 장식한 철기가 등장하였고, 급기야 흥덕왕 9년(834년)에 사치금지령이 내려진다. 그 이후로 철기의 장식에는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조개껍데기가 이용되었다. 즉 나전철기가 우리나라 유일의 장식철기가 된 것이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나전철기의 전통을 독심 하나로 지켜나가는 명장이, 1972년 이후 성

남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4호 나전칠기장 배금용이다. 1944년생인 그는 일찍이 아버님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상경하여 10살 때부터 고 최



준식 선생님께서도 도제식으로 나전칠기를 배운 인물이다. 타고난 장인 정신과 남다른 성실성, 제1인자가 되겠다는 신념이 더해져 그의 실력은 일취월장했다. 그리고 1987년 마침내 그의 작품 2점이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 서 입선이 되면서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1989년에 2점을 다시 출품하여 입선되면서 명장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는 평생 옷으로 인해 까맣게 착색된 손끝과 손톱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직도 주문제작을 받지 않는다. 기한을 두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작업을 하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아울러 돈을 쫓으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믿고 돈벌이를 위한 상품제작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일에 미쳐 가난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는 두세 시간 밖에 자지 않고 작업에 전력했다고 하며, 칠순을 넘은 지금에도 10시간 이상 어김없이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자다가도 좋은 구상이 떠오르면 바로 작업장으로 달려가 실험을 해 보았고, 나전칠기의 전 공정을 제대로 터득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런 한편으로 금속선으



로 문양을 넣는 자신만의 기법을 창안하여 나전칠기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도 했다. 어쨌든 성남시민속공예전시관에 자리한 그의 공방에는 30여 평 공간에 그의 작품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그는 그 공간을 ‘상품’ 전시실이 아니라 ‘작품’전시실로 여기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 스캔들



as life followed a single path in the studio.

"In the beginning, I just got to live in the studio because they let me stay and have meals. I did not even know what Najeon-shilgi was. Other trainees told me about hard corners and left but I had no other option, so just stayed and focused on the artwork. Once I took it as my only way to go, it was so tough and I got used to it. Decades passed by this I didn't realize," he told Infomag at his work studio in Seongnam, Gyeonggi province.

Soon he became independent from his master and opened his own studio. However, traditional needlework became rarer with the advent of manufactured goods and he had to shut down his studio four times.

It was not profitable at all and many of artisans left the business, putting Najeon-shilgi at stake. His first put into his artworks began to be paid off in his expertise, as interest toward traditional culture started coming back.

Soon afterwards, Artisan Blue won an award in Korea's Traditional Arts competition. It was the beginning of his awards streak record in various art competitions and art competitions. He was recognized as a gifted artisan and designated a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in Gyeonggi Province in 1998. He was also received the best master and elected as "The Great Korean artisan" in 2001.

Artisan Blue began working more actively. He allowed his belief of being close to public and spread beautiful traditions. His work is on the wall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VIP room and set as prop in the recent movie, "Unstoppable Seoul". He is contributing to projects for cultural assets by receiving perfectly named "vase patterned urn box in Goryeo Dynasty" (estimated to be made in the 13th century, currently stored by Japan).

"I hope many people appreciate Najeon-shilgi and understand how wonderfully they were made by our ancestors. It's not about honor or money, but every people getting used to Najeon-shilgi and beginning appreciating Korea's excellent tradition," he said.

As he stated, Najeon-shilgi is being popularized. His disciple and son, Kwang-soon, has won many awards with his Najeon-shilgi office supplies and household and some were even com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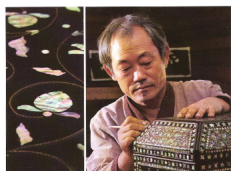


cited. He has taken over his father's talent thoroughly and is specialized in an field with his original works that contain both practically and tradition.

"I feel sorry for the absence of museums and exhibitions for Najeon-shilgi. My dream and goal is to build a Najeon-shilgi museum that anybody can come and appreciate the artwork which is made of good materials and created scientifically, as people mature."

Quality goods are not good enough with luxurious brand logo. Artisan Blue's 30 years of experience, original techniques and processes, coming down from the Goryeo Dynasty, is what it takes to make quality goods!

24th intangible cultural asset, artisan Blue Kwang-soon, whose Najeon-shilgi artwork has special elegance and graceful preferences, has also gone through this long period of training. He has won many awards in various competitions and has also been selected as a New Intellectual but behind his glory.



Infomag | 101



<http://www.culture3.com>

<http://www.culture3.com>

2006.11.8 - 2006.11.12 NO.348

정경NEWS 8

THE MONTHLY POLITICAL & ECONOMIC NEWS

북 미사일 해의 반응 - 미국 · 중국 · 일본

차기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지지도
박근혜 1위 30.8% 2위 이명박 30.8% 3위 손학규 5.5% 순

"한미일 공조만이 문제해결 열쇠"

영국과 해소 경기부양' 여당 복소리 반영 "한나라당 분열되면 차기대권 희망 없다"

한나라당 새 신장 경제섭 대표 "대선승리위해 정치생각 꺼졌다"

한나라당 도당인원 수확지역서 비경이 곧로 사회지도층 도약성, 수혜에 실종했나?

신설내건축문화 청초의 선두주자

최악 폭우사태 대비책 없단 말인가?

무형 문화재 나전칠기 옷칠장 24호 명장 배 금 용

장인정신으로 민족 혼 일깨운다

한민정신으로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것은 나전칠기의 정신, 장인의 정열, 문화의 전통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배 금 용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데 힘쓰고 있다. 그는 나전칠기 장인으로 30여 년째 작업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는 나전칠기 장인으로 30여 년째 작업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장인정신으로 민족 혼 일깨운다

배 금 용은 나전칠기 장인으로 30여 년째 작업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대학내일

2006.11.8 - 2006.11.12 NO.348

세월이 흐르면 내일은 내일이다

대학내일은 학생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잡지이다. 학생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잡지이다.

SPECIAL 004

나전칠기와 함께 50년 외길

명 장 배 금 용

배 금 용은 나전칠기 장인으로 30여 년째 작업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나전칠기 장인 배 금 용

배 금 용은 나전칠기 장인으로 30여 년째 작업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图 18





<http://blog.naver.com/hssm0710>



- ▶ 전수조교 배금호와 그의 자문을 받아 제작된 '바디프렌드'의 나전장식 안마의자. 그는 나전예술의 정맥을 이어받아, 법고창신(法故創新)의 정신으로 나전칠기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배금용의 주요 약력

1954. 6. 20 정읍 서 초등학교 3년 중퇴
1954. 11. 10 (고)최준식 선생님의 옷칠 및 도장기술 전수
1969. 6. 29 육군보병 35사단 입대 501 목공
1972. 7. 25 군 만기 전역
1972. 7. 30 (고)민종태 선생님 공방 입사(옷칠 도장)
1982. 3. 15 만정공방 자영 (대표)
1990. 10. 19 경기도 우수 공예인 90-6호 지정
1998. 4. 21 경기도 유공자 표창장
1998. 9. 21 경기도 무형문화재 24호 나전칠기칠장 지정
1999. 10. 20 성남시 신지식인 선정
2001. 9. 15 국민이 주는 대한민국 국민상
2001. 11. 1 대한민국 명장 선정 2001-18호
2001. 11. 1 노동부장관 표창장
2004. 7. 1 청소년 선도위원 법무부장관위촉장
2004. 4. 13 경기도 유공자 표창장
1995. 4. 19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
1995. 9. 5 전국 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
2004. 9. 1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2005. 9. 24 성남시 문화상 예술부문 수상

배금용의 생애사



목수 일을 하던 아버지(배상동씨)와 어머니(김영숙씨) 사이에서 1944년 10월15일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남산리 109번지에서 3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징용으로 끌려가셨던 아버지가 귀향하셔서 동네에서 차려준 축하잔치에서 음식을 드시다 음식이 목에 걸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나마 먹는 걱정은 없었습니다.

제 나이 6살 때, 세상을 원망할 겨를도,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틈도 없이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던 당시 21세의 어머니는 저와 남동생(배덕용)을 전남 영광에서 살던 큰집에 맡기고 여동생(배복순)만 데리고 고창의 어머니 친정집에서 살게 됐고 출지에 이산가족이 되고 만 우리 가족.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 형제를 데리고 가라는 큰집 성화에 우리 3남매를 친정집에서 키우던 어머니는 친정에서도 모진 구박을 받았고, 먹을 식량이 없어 어머니와 우리 3남매는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에 가면 밥도 먹고 학교도 다닐 수 있다는 동네 어

른의 얘기에 전북 정읍에 있는 한 고아원에 우리 형제를 맡겼으나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으려 한사코 떼를 쓰던 동생을 어머니가 데리고 가고 저만 그 고아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지새우던 저도 고아원 생활에 적응해 갔고 고아원 연극반에 뽑혀 연극도 배우고 동네 교회에서 연극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동생들 생각, 고향생각과 함께 춥고 배고픔에 견디지 못한 저는 고아원에서 같이 지내던 형들과 고아원을 탈출했습니다. 그 때가 정읍 서초등학교 3학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탈출하던 형들 중 한 명은 고아원으로 붙잡혀 갔고 ‘원씨’ 성을 가진 형과 저는 고창으로 걸어오면서 남의 집 대문 앞에 말아두었던 멍석으로 이불을 삼고 밥은 깡통에다 얻어먹는 이름 그대로 거지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외삼촌. 그 때의 심정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이사한 외삼촌이 고아원에 있다는 제가 보고 싶어서 그 고아원을 찾아갔는데 탈출했다는 소식에 실망 속에서 서울로 가시려다 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외삼촌을 따라 서울로 오게 됐고 방 한 칸밖에 없는 외삼촌택에서 저를 포함, 여섯 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어머니도 만났지만 어머니는 재혼하신 뒤였고 자주 외삼촌택에 놀러오시던 새 아버지가 저를 먼 친척의 아들로만 알았던 그 때의 그 심정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눈칫밥 먹으면서 지내던 저는 외삼촌택 부근에 나전칠기공장이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그 공장 주인이었던 최준식 선생님의 배려로 1953년 10월에 그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10살이었고, 52년 전 얘기입니다. 그 때부터 또 한 많은 저의 나전칠기공예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공장에서 일한지 2~3년이 흘러가는 동안 8명이나 됐던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선생님과 저,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선생님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저녁에는 산수나 한문, 게다가 영어도 배우며

그렇게 나전칠기 기술을 배우는 데 폭 빠져들게 됐습니다.

함께 일하던 아저씨들이 떠난 후 선생님은 늘 술을 즐기셨는데 아침에 외출하셨다 저녁에 오셔서 제가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보시며 꾸중도 하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최준식 선생님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10호이신 심부길 선생님, 칠기 원로이신 민종태 선생님, 무형문화재 칠장이신 고 홍순태 선생님, 중요무형문화재 10호이신 고 김태희 선생님 등 나전칠기계통에서 유명한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 분들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는 오늘의 제가 있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무한한 꿈을 심어주던 그 공장은 1956년 들어 일감이 없어 몇 달을 쉬다 결국 문을 닫았고 선생님을 따라 저는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에 있는 이태희 선생님의 합동공장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공장에 불이 나는 바람에 그곳을 떠났고 1년 넘게 일하던 당시 서울 성동구 구의동 소재 동산산업(주)도 4·19혁명으로 인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 길 선생님 공방에서 일하던 중 5·16혁명으로 그 공방마저도 문을 닫았고 최준식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공장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 때는 화병, 오봉, 담배함, 소반 등을 만들어 신신백화점과 화신백화점 등에 납품도 해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선생님과 헤어져야겠다는 고민을 며칠동안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저에게 월급을 한번도 제대로 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에 목돈으로 주시겠다던 선생님 말씀만 믿고 열심이 일했는데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월급도 없고, 왜 그리도 서운했고 서러웠던지... 선생님의 약속은 안 지켜지고 그에 대한 대안도 없었고.

그 때가 1962년 여름. 저는 고심 끝에 최준식 선생님 곁을 떠났고 동산산업(주) 도안실에서 근무하셨던 김영찬 선생님이 종로에다 공장을 차렸다 하여 찾아갔고 그 곳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도 “네가 아직 어리니 월급은 내가 모아 한꺼번에 줄 테니 내게 맡겨놓은 셈 처라”는 선생님의 말씀

을 믿고 일한 2년.

전혀 예기치 못했던 김영찬 선생님의 자살. 저는 또 한번의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찬 선생님의 부인으로부터 선생님이 쓰시던 연장과 자개재료들을 건네 받아 방 1개에 가게가 딸린 곳을 얻어 화장대와 문갑 등을 만들어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생후 처음으로 제 공방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저는 저의 공방을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는 이환용 선생님 공방에서 2년여 근무하다 용두동 박철공 선생님 공방에 스카웃 되었고 세화가구 전속 일을 하다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1969년 6월 육군 35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 김해 공병학교 목공 반에서 6주간 훈련 후 35개 월 여의 목공으로서의 군 생활. 그 군 생활은 오늘의 제가 있게 된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걸어 오셨던 목공예에 나전칠기를 접목시킬 수 있게 된 제 나전칠기공예 세계가 새로운 시각과 함께 새로운 계기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1972년 7월 힘들었으나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던 군에서 제대 후 저는 고이병철 삼성그룹 회장님이 원하셨던 제품을 많이 만드셨던 민종태 선생님 밑에서 반장이라는 직책으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종태 선생님 밑에서 일을 했던 것은 저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그만큼 제 시야가 넓어졌으니까요.

그렇게 그 분의 지도 하에 3년이 지난 어느 날 선생님이 저에게 제품을 밀어줄 테니 하청을 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망설였던 저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하청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월급 탈 때만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보는 것입니다만 저는 월급쟁이 체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여간 어려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도 떠나고 결국 5년 여 고생만 실컷 했습니다. 하기사 고생이라면 이골이 난 저였으니까요.

그러다 부산 바람이 불어 저의 가족들은 부산으로 이사를 했고 1년간 공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경남 기장(현재는 부산시에 편입됨)에서 공장을

하던 친구의 요청으로 저의 가족은 그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친구 공장에서 근 5년을 일한 뒤 1982년에 다시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했고 40평 남짓한 공장을 얻어 '만정공방'이라는 상호로 가구 하청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제 일이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5년간 열심이 일했습니다. 정말 그 때는 남들처럼 저도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는 경영인이 아니었던 듯. 남들은 시작하면 다들 잘 되던데 왜 저만 시작하면 안 되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문을 닫았고 마침 이러한 제 사정을 알게 된 민종태 선생님의 셋째 아드님인 길호 씨가 고아디자인연구원에서 옷칠 연구를 같이 하자고 해 1년간 마포로 출퇴근 하였으나 아니다 싶었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야 어찌됐든 상관없었지만 저를 바라보면서 정말 고생만 했던 집사람과 자식들은 희생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었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고, 참으로 속상한 일들만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리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덕분에 술도 많이 마시게 됐고 하루도 술 마시지 않고는 못 배겼던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말 그대로 엉망 된 생활을 하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이 이대로 끝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의 기대, 그리고 저의 가족들과 동생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주저앉기엔 지나온 제 삶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정말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제 인생. 그렇게 끝내기에는 너무도 한 많은 삶이었기에 그 한을 살아서 다 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마음먹고 일어난 저는 주위 분들의 권유와 격려 속에 열심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술한 고통과 아픔을 안고 만들어진 작품은 1988년 '제13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입선을 하였고 난생 처음으로 신문에 실린 제 이름을 보았

습니다.

올다가 웃다가, 또 웃다가 올다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배금용이가 다시 태어난 눈물ियो, 웃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태어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거지 아닌 거지생활을 하고 굶기를 밥 먹듯 하며 나전칠기공예를 배워온 제 이름이 신문에도 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후부터 저는 ‘상복 터진 사람’이라는 주위 분들의 얘기처럼 많은 상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제13회 입선을 시작으로 제14회·15회·16회·17회·18회·20회 등에서 입선 및 특별상, 그리고 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아공예대전’에서 1989년 제17회 입선을 시작으로 제18회·19회·20회·22회·23회 등에서 입선 및 특선 2회를 했고 현재 동아공예대전 동우회 회원이자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에서는 제20회·21회·22회·23회·24회·25회 등에서 입선 및 특선과 함께 장려상과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전국공예품경진대회’에서도 1990년 제20회를 시작으로 제21회·22회·23회·24회·25회 등에서 역시 입선 및 특선과 함께 장려상을 수상했고 1994년도에 ‘제8회 대한민국 국제미술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증인 ‘칠기능사’와 1995년 ‘제1624호 문화재 수리기능보유자’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 후 1995년 ‘경기도기능경기대회’에서 은메달 수상에 이어 그해 가을에 있었던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1990년 10월19일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우수공예인 90-6호’로 지정받은 저는 1998년 9월21일 드디어 공예인의 꽃으로 불리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24호 나전칠기장’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 10월20일 경기도 성남시로부터 ‘대한민국 신지식인’에 선정됐고 2001년 9월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이 주는 대한민국 국민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01년 11월1일 기능인의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 명

장'에 2001-18호로 선정됐고 또한 이 날 '노동부장관 표창장'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4월13일 '경기도 유공자 표창장'을 받았고 그 해 7월1일 법무부로부터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대회 심사위원으로도 많은 활동을 했는데 1997년 5월 30일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과 2003년 10월2일 '한국옷칠공예대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는 1997년도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8회에 걸쳐 심사위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종합미술대전'과 '대한민국 국제미술대전', 그리고 '제5회 한국 문화재기능인 작품전'과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등에서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렇듯 각종 대회 입상과 함께 심사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저는 전국의 구치소나 소년원 등에 작품 헌정을 해오고 있어 이 덕분에 성동 구치소장 감사장, 충주소년원장 및 안양소년원장 감사장 등 법무부 산하 구치소장·소년원장님들의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과 자라오면서 별의별 고생을 했습니다. 때로는 악의 유혹도 있었고, 그러기에 한순간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또한 각종 사회악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 소년원생이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아울러 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술인들과 함께 작품 헌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들도 처음부터는 죄인이 아니었고 죄를 짓고자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도 제 작품이 그들에게 꿈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최대한 구치소나 소년원 등에 작품 헌정을 하려 합니다.

이러한 봉사활동과 함께 제가 또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장병 어린이가 무료 수술을 해주면서 결손가정 어린이가 돕기 및 학대받고 있는 어린이 돕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썬아브더칠드런 어린이

보호재단 성남시민속공예전시관 후원회에서의 봉사활동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씨이브더칠드런 어린이보호재단은 세계적 복지기구인 씨이브더칠드런과 한국어린이보호재단이 작년 가을에 합병한 복지단체입니다.

저와 많은 공예인들이 동 재단의 ‘전국 후원의 밤’ 행사에 경매용 작품 기증을 작년까지 4년째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받아 2004년 4월2일 어린이보호재단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봉사는 제가 죽는 날까지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주춧돌이 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고통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밝은 사회 만들기에 동참하는 뜻에서입니다.

이 같은 봉사활동과 작품 활동 중에도 저는 나전칠기 개선을 통한 디자인 개발과 함께 레이저를 응용한 절삭방법과 재래부착의 자동화시스템 개발 등 나전칠기공예의 계승발전을 위한 기술개발도 곁들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조달청과 반상기 1억5천만 원의 납품계약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활동 외에도 2000년 9월25일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의 ‘나전칠기벽화’ 공동제작, 그리고 2001년 1월22일 ‘쌍학 십장생도 서류함’ 박물관 소장, 2002년 12월2일 ‘주택복권 작품’ 10점 발행(국민은행), 2003년 3월10일 영화 ‘스캔들’의 안방가구 제작, 2004년 9월10일 ‘안악지에서사 고구려벽화 나전칠기 전시회’ 작품제작(전시: 코엑스 3층 오도토리움) 등 여러 작품제작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많은 공모전의 운영위원으로, 그리고 작품전 등에 참여했으며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2월27일 (사)한국옻칠문화연구원에서 공로패를 받았고 2003년 2월27일 무형문화재 총 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50여 년간 오로지 한 길, 나전칠기공예를 통한 우리 고유의 전통공예의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해 온 저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옻칠문화연구원 부원장으로, 사단법인 한국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회원으로,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 회원으로, 사단법인 국제미술작가협회 공예분과위원장

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로 임명되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제가 ‘교수’라고 불리 우는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는 공예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삶은 마음먹기 나름이고 행동하기 나름’이라는 것과 ‘꿈은 마음먹고 열심이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만 한탄한다고, 세월만 한탄한다고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남의 탓만 하다보면 제대로 뿌리지도 못하게 되고 또 제대로 뿌리지 못하니 제대로 거두지 못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오로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크든 작든 나름대로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죽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저라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삶에 대해 노여워 할 시간이 있고 삶에 대해 슬퍼할 시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 죽을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리고 죽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조차도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삶에 대해 노여워 할 시간이 있고 삶에 대해 슬퍼할 시간이 있다면, 그리고 죽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자기 자신과 주위를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 시간을 자기가 해야 할 몫을 위해 쓰고 자기 꿈을 위해 쓰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나온 제 인생여정에서 돌이켜 본 것처럼 지나온 오랜 세월 수많은 시간과 나날들이 고통과 아픔으로 도배돼 왔습니다.

하지만 제 목숨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의 부모님들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여겨 왔습니다. 그래서 살아왔고 ‘태어난 이상, 살아있는 이상 저의

몫을 다해야 한다'며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야말로 거창하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제 이름 석 자 남기기 위해 오늘까지 살아온 게 아닙니다. 그저 먹고살기 위해, 그리고 저 한 사람 믿고 술한 고생 이겨온 제 집사람(김수자)과 큰아들(배광국), 그리고 대를 잇겠다고 제 곁에서 나전칠기 공예를 배우고 있는 작은 아들(배광우)을 위해 열심이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50여 년 동안 종사하고 있는 나전칠기공예를 천직으로 알고 한눈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왔을 뿐입니다.

그러다보니 나전칠기공예 부문의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그리고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또한 '대한민국 명장'에 이어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로서의 명예와 영광을 가진 저, 배금용이 돼 있음을 알게 됐을 뿐입니다.

이러한 위치의 제가 있기까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고 최준식 선생님, 심부길 선생님, 민종태 선생님, 고 홍순태 선생님, 고 김태희 선생님, 이태희 선생님, 고 김영찬 선생님 등 나전칠기계통의 원로선생님들과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공예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용기를 북돋아준 제 집사람과 아버지를 믿고 잘 따라준 제 아들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한 많은 저의 '나전칠기 공예인으로의 제 인생' 여정을 끝내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공예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삶은 마음먹기 나름이고 행동하기 나름’이라는 것과, ‘꿈은 마음먹고 열심이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만 한탄한다고, 세월만 한탄한다고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남의 탓만 하다보면 제대로 뿌리지도 못하게 되고 또 제대로 뿌리지 못하니 제대로 거두지 못 한다’는 것도.”

“제 이름 석 자 남기기 위해 오늘까지 살아온 게 아닙니다. 그저 먹고살기 위해, 그리고 저 한 사람 믿고 술한 고생 이겨온 제 집사람(김수자)과 큰아들(배광국), 그리고 대를 잇겠다고 제 곁에서 나전칠기공예를 배우고 있는 작은 아들(배광우)을 위해 열심이 살아왔을 뿐입니다.”

“저는 50여 년 동안 종사하고 있는 나전칠기공예를 천직으로 알고 한눈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왔을 뿐입니다.”